

# 영광, 500명 채용 장담 업체 착공후 바로 폐업

## 집중 진단 지자체 산단 개발 경쟁

### <중> 부풀려진 고용·분양률

지난 3일 오전 찾은 영광전자자동차산업단지는 등성등성 공장이 보일 뿐 잡초만 무성했다. 804억원을 투자해 500명을 채용하겠다고 장담한 업체는 주시사가에 휘말리며 문을 닫았고, 수도권에서 이전하며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화려한' 착공식 후 부도처리돼 철골 구조물만 덩그러니 남겨놓았다. 이 업체 역시 60억원을 투입해 85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6곳에 불과, 분양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 35곳의 5분의 1도 안 된다.

일부 기업은 고용인원도 크게 부풀려 있다. 29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한 수도권 이전기업은 7명이 근무하고, 주문량이 늘면 수도권 본사로부터 직원이 파견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기업인 (주)티큐이엔지 김재봉 대표는 "(지금 회사 형편에)100명 근무는 말도 안 되고, 현재 23명, 그나마 일이 있었을 때는 55명이 근무했다"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받고, 일감도 없어 고민이다"라고 토로했다.

주방기구를 제조하는 (주)제이제이 관계자는 "광주에서 이전한 뒤 지역민의 부정적인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보조금이나 받고 전기세 절반 감면 때문에 15억원이나 투자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단체장이 바뀌면서 산단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주)탑글로리측은 분양률 통계에는 '등기이전까지 완료된 업체', '중도금까지 낸 업체', '계약금만 낸 업체' 등이 포함된 것으로, 그 가운데 계약금만 낸

### ■ 부풀려진 고용효과 사례

산업단지	기업명	지자체 파악 고용 효과	실제 고용	비고
영광 전자자동차 산단	A	29	7	경기도 본사에서 직원 파견 근무
	B	100	23	최대 인원 55명
	C	89	35	25명 지역에서 채용

### 수도권 이전기업, 일감 늘면 본사서 인력 받아 운영 분양 받은 상당수 업체 계약금만 내고 감감 무소식

업체가 상당수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전자자동차 충전기를 만드는 (주)이에스티 시그넷시스템 측은 직원 35명 가운데 25명을 지역에서 뽑았다. 영광군은 이 업체로 인한 고용 효과가 89명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직접 읍내를 돌며 사람을 구했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며 "고령화, 청년층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예상대로 산단 내 기업들이 들어와도 일손을

뭉구해 난리가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목포 세라믹산단은 아예 가동중인 업체가 없다. 1필지를 분양받은 업체는 대금 10억원 중 계약금 1억원만 내놓은 채 감감 무소식이다. 애가 탄 목포시는 시내 곳곳에 분양 플래카드를 걸고, 담당 직원들은 전국 180개 업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로 맞은편에는 포크레인

등 중장비가 연신 굉음을 내며 2902억원 짜리 대양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광양신금산단 역시 주변에 몇 개 기업만 입주해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공터로 남았고, 화순 생물의약단지도 마찬가지였다.

화순군으로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6명을 채용했는데 일감이 없다"고 말했다. 화순군은 뒤늦게 실시계획을 변경해 의료기기업체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으나 아직 성과는 없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미분양산단 면적은 470만2000㎡, 미분양률은 20.8%로, 이는 전국 평균인 9.3%의 3배에 해당 하는 수치다. 이 통계는 계약금만 낸 '임시' 분양도 포함된 것으로 실제로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5년간 연평균 실분양 면적은 250만㎡에 불과한데 앞으로 3년 내 분양공고 예정 산업용지는 1010만㎡에 이르러 미분양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잡초만 무성한 목포 세라믹산단

지방세 98억원, 시비 122억원 등 모두 220억원이 투입된 목포시 연산동 세라믹산업단지는 지금까지 단 1개 업체만 분양 계약을 했다. 잡초 무성한 산단 부지에 종합지원센터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한 마리 슬개 되어 일만 이천봉을 한눈에



(92) 진경산수



겸재 작 '금강전도'

여름 나무의 무성한 이파리를 번비로 보았던 어느 카피라이터의 글을 접하고 봄, 여름의 숲을 좋아하는 나는 잠으로 번비가 많은 사람이 하는 생각을 해본다. 푸르던 잎이 화려하게 물들더니 어느덧 낙엽이 되어 쌓이기 시작한다. 나뭇잎 떨어듯이 이 번비도 저 바람에 날아가 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상이 예술과 부대끼고, 일터가 숲이 아름다운 중외공원 기슭에 있다 보니 남들 모두 떠나는 단풍구경을 몇 년째 가본 적 없어도 서운하지 않다. 어찌면 오래 전 눈으로 본 불타듯 아름다운 지리산 단풍을 마음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그 때 보았던 풍경과 감동은 지금이라도 다시 재구성해 볼 수 있을 만큼 생생하다.

한국 회화에서 눈으로 본 실경(實景)을 마음으로 그린 풍경화인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로 발전시킨 화가가 겸재 정선(1676~1759)이다. 겸재는 중국의 산전을 관념적으로 그렸던 데서 벗어나 우리 산천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그렸고, 자신의 인상적인 기억을 새로운 화법으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당대에도 이미 화강(畫聖)으로 불리어졌다. 겸재의 '금강전도(1734년 작)'는 단풍잎이 다 저버

린 겨울날의 개골산봉을 그린 작품이다. 한 마리 슬개 되어 일만 이천 봉을 한눈에 내려다본 것과 같은 부감법의 원형구도로 내금강의 전경을 묘사한 이 작품은 정선의 진경산수 화풍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는 임란과 호란의 후유증을 극복한 영조 시기로 경제가 안정되면서 금강산 유람 열풍이 불었고 정선의 금강산 그림의 인기도 절정이었다. 정선의 금강산도 1점에 남산 아래 집 한 채 값인 3천 냥을 호가하기도 했다 한다. 정선과 교우했던 선비화가 조영석은 문집 '관아재고'에서 "무엇보다 그의 그림에 대한 노력은 사용한 붓이 무덤을 이룰 만큼이나 되었고 스스로 새로운 화격을 창출하여... 진정코 우리나라의 산수화는 정선에서 출발하여 개척한 것이다"고 찬탄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박지원 "5대 사정기관장 영남 출신...인사 편중 심각"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은 19일 "공정거래위원장을 다시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임명해 대한민국 5대 사정기관장인 감사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공정위원장이 모두 영남출신으로 채워졌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역대 어느 정권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인사를 한 적은 없다"며 "청와대는 지역편중 인사 때 마다 출신지가 아니라 능력을 우선한 임명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영남 출신이 아니면 사정기관을 맡을 인물이 한 사람도 없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국민통합을 해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트린다"며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은 물론 5대 사정기관장을 모두 영남 출신으로 세운 것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정세균 비대위원도 이날 "국민안전처 신설은 '경질성 조직개편'으로 재난 대응에 있어 정부의 총체적 무능함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 차원에서 새로 만든 어진 조직"이라며 "그런데 인사와 조직편제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반성'의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난안전 관리와 거리가 먼 장·차관 인사에 관련 조직을 한데 모아 덩치만 키운 옥상옥 구조로 조직의 화합과 협업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도시철도 2호선 포기는 광주 미래 포기하는 것" 광산 신도심 시의원들 원안 추진 압박

### 윤시장 "일자리·복지 등과 우선순위 고민해봐야"

갈수록 논란이 거둬지고 있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와 관련,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19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원안 추진을 압박했다.

광주시의회 김옥자(새정치·광산 3)의원은 이날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단지 재정적 문제만을 이유로 포기한다는 것은 광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원안 추진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인구 밀집지역인 수완지구나 상무, 첨단지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교

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며 "사회간접자본사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활동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로서 재정문제를 운운하기 이전에 광주의 미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중(새정치·광산 4) 의원은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윤장현 광주시장과 오형국 행정부시장, 강신기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최근 광주시가 내놓은 도시철도 2호선 재정분석 자료가 부실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위해 광주시가 부

실하고 불투명하며, 객관적이지 못한 자료를 내놓았다"면서 "건설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형국 부시장은 "시민의 선택에 의해서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다시 한번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시 분석한 것"이라며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과장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윤 시장을 상대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할 계획이었다면, 지방선거에서 공약에 포함시켰어야 했다"

면서 "원하는 안이 나올 때까지 재검토 결과를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교통의 복지차원 또는 환경생태적인 교통망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지역의 미래를 위해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 약자에 대한 복지문제의 우선 순위를 따지다보니 이 문제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재정부담 만을 이유로 이미 결정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를 재검토한다면, 세계수영대회도 같은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땅끝해남 농수산물로 김장하세요!

# 해남미소

**해남미소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만나 보세요 !!**  
대한민국 최남단 청정해남의 소중한 마을과 청성을 더해 가장 귀한 상품만을 엄선 했습니다.

www.해남미소.한국  
www.hnmiso.com

해남미소 061-537-1472(일사천리)  
**080-859-1100(무료)**

